

[2015.01.22(목) 강원일보]

건설사 입찰담합 방지 '1사 1공구제' 폐지 가닥

종합심사 낙찰제 내년 시행

특정 회사에 일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던 '1사 1공구제'가 폐지되는 등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일감 쏠림현상 방지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1사 1공구제가 이날부터 폐지됐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하고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공사 입찰 방식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 참여 건설사 간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대안으로 제시된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하던 실적공사비는 올 하반기부터 계약단가를 비롯해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하위윤기자

도내 전월세 주택 거래량 증가

지난해 도내 전체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2,170건으로 전년 동월 2,063건에 비해 5.2% 증가했다.

연간 거래량은 전년보다 3.7% 늘어난 2만8,743건으로 집계됐다. 매월 2,395건씩 거래된 셈이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이 임대차시장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위윤기자

[2015.01.22(목) 강원도민일보]

2015 강원경제인대회 · 신년인사회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11시
호텔인터불고원주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강원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2015 강원 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온세현 품질경영연구소 대표를 초청, 2015년 국내외 시장의 트렌드와 중소기업의 대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원경제인대회가 강원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 행사 내용 : - 특강 : 품질경영연구소 대표 온세현 박사
- 2015 강원도 경제진흥시책 설명
- 오찬
- 행사 안내 및 참석 문의 : 강원도민일보사 전라사업국(260-9310),
편의국 경제부(260-9230), 영서본부(746-8002)
- 참가비 없음

주최 강원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도민일보

홍천군 254개 건설 사업 추진

467억 투입 경기활성화 유도

3월부터 조기착공 연말 완공

홍천군이 올해 지역건설사업에 467억원을 들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홍천군은 올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건 180억원, 하천 정비사업 18건 112억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94건 74억원, 마을안길포장공사·배수로 설치사업·소교량설치사업·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등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107건과 기타사업 11건에 101억원 등 254개 공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54개의 모든공사를 내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조기 착공해 연말 완공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천군은 지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건설방재과장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편입용지 보상협약이 원만히 이뤄지면 올해안으로 모든공사가 완공된다"며 "농업기반 정비사업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상반기내에 완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홍천/권재혁